

2009 만해축전 현장으로 고고씹~

만해 스님의 평화 사상 오늘날에 오다

만해정신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2009 만해축전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만해대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과 각종 심포지움, 시낭송, 공연, 백일장 등 문학적 열정을 만해의 상상과 평화 정신으로 승화시킨 축전은 11일 오후 2시 만해시인학교 개교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촌 김재봉의 '만해 한용운의 재근담 서예전'이 개막됐고 '서양사상과 선'을 주제로 하는 시와 세계 심포지움도 열렸다. 노래패 월가방 프로젝트와 가수 안지환의 축하공연으로 꾸며진 전야제는 시낭송으로 장식된 전야제는 밤이 깊도록 흥을 돋우었다.

#불멸의 인간사 미래로 이어가야

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평화부문에 시인 에바디(이란 변호사 인권운동가) 실천부문에 이소선(전태일기념사업회 고문) 학술부문에 김용직(학술원 회원, 서울대명예교수) 문학부문에 로버트 하스(미국 버클리대교수)와 김중길(시인, 고려대명예교수) 포교부문에 뱀나와로(뽀다넷 웹마스터) 등 6명.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 유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삼래 인천군수 등 기관장과 고은 김남주 이승훈 시인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자호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입제식과 시상식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구촌을 휘어잡고 있는 물신의 폭풍으로 모두가 험겨운 시절"이라며 "중생을 애호하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인류의 연대만이

만해대상 시상식, 심포지움, 공연 등 불거리 '풍성' 시조 부흥, 종교·사회 소통, 생태 상상력 증장 '이슈'

우리 시대를 구원하고 나아가 무한한 세월 속에서도 불멸의 인간사를 미래로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유인촌 장관은 "만해 스님의 애국사상과 문화정신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어둠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진선 지사는 "내년에는 도지사 직을 물러날 것이므로 한 관직으로 이 자리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평화부문 수상자 시인 에바디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란에서는 종교자유가 없다. 개종을 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이란의 종교 사회적 억압과 인권 침해 등을 토로했다. 경찰에 의해 사무소를 폐쇄 당하기도 한 그는 "만해대상평화상 수상자로서 인권 운동가 사무소를 열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과 세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애 얘기도 길게 못 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힌 이소선 여사는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소선 여사는 "지금 이 나라를 이만 큼 만드는 데는 노동자들의 피땀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상은 이소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다"고 말했다.

#올해도 풍성한 프로그램

올 축전은 하버드대학에서 5월 15일 열린 '만해시조페스티벌'을 비롯 다양한 내외부 행사로 꾸며졌다. 올 축전의 주요 이슈는 시조의 부흥과 종교와 사회의 소통, 생태적 상상력의 증장 등이 꼽힌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법정 스님 수필에서 '생태'를 건져 올린다

평론가 임현영씨 발표문 주목... 불교문에 심포지움

만해축전에서 불교문학과 세상의 소통을 추구해 온 <불교문예>는 올해도 '불교문학과 생태적 상상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4대강 개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등을 놓고 국민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적 삶은 문화에서도 커다란 화두가 된 것이다.



평론가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받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현영씨는 법정스님의 산문집 13권 기행집 1권 번역서 4권을 다 읽었다. 그는 '무소유 사상'의 불교적 견해와 삶에 적용되는 가치 등을 살피며 법정 스님의 글 속에서 생태적 가치관을 도출해 냈다.

8월 12일 만해마을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문학평론가 임현영(사진)씨는 '법정 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법정 스님의 수필이 문학

이 보여주는 생태적 측면은 불교적 연기설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결론 지었다. 임연태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사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가려이 재형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미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고성능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듬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듬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듬(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